

어른을 위한 시간...과학관으로 밤마실 가자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행사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
‘중독’ 주제 만찬·공연 등 성료
19일 4번째 행사...11·12월 진행

오후 6시 국립광주과학관의 문이 닫히면 낮 동안 과학관을 가득 채웠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성인들만 남는다.
잠시 꺼졌던 과학관 불빛이 하나둘 다시 켜지면 로비에는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울려 퍼진다. 후각을 자극하는 음식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이 즐거운 식사를 시작한다.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광주과학관의 특별한 과학문화행사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의 현장이다. 과학관은 ‘과학관은 아이들만을 위한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계층에 과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 12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지난달 27일 오후 열린 국립광주과학관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은 과학기술인공제회 관련 기

관을 초청해 진행됐다. 원래라면 19세 이상 성인만 참여할 수 있는 행사지만 이날은 사학재단 직원 가족에게도 문을 열었다.
이번 페스티벌의 테마는 ‘중독’이었다. 앞서 4월 부터 두 차례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각각 꽃과 우주를 주제로 강의가 열렸다.
‘맛과 리듬에 중독되다’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로비 빛고을탑에서 뷔페식 만찬과 함께 2인조 재즈 팀 ‘그루벨리’의 공연이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재즈 공연에 흠뻑 빠진 채 따뜻한 볶음밥, 바삭한 튀김, 달콤한 간식, 시원한 음료를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관람객들은 천체투영관(플라네타리움)으로 이동했다. 천장이 돔 형태로 조성된 이곳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우주여행’을 주제로 한 ‘2025 돔 영화제’가 열린 장소이기도 하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의 과학’을 주제로 tvN STORY ‘어쩌다 어른’의 정재훈 약사가 무대에 섰다.
그는 “사람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라며 “식사 직후 바로 앉아 강의를 들으면 인체 대사가 떨어져 자연히 식곤증이 온다”고 설명했다. 막 식사를 마치고 앉아 하품을 하던 관람객

들은 그의 말에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정 약사는 이어 운동과 건강의 원리를 풀어냈다. 그는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활력이 생기고 체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하면 피곤해진다”며 “이 피곤함이 스트레스 반응과 몸속 염증을 줄이는 원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몸이 피로해지면 스트레스와 염증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 좋은 중독을 허(許)하라’를 주제로 한 3부에서는 커피 바리스타 체험과 뇌과학 특별전 투어가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커피의 맛과 향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들으며 직접 커피 바리스타가 되어보는 이색 체험을 즐겼다. 이어 전문가 해설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국립과학관 공동특별전 ‘신기한 뇌 세상’을 관람했다.
올해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은 앞으로도 9월 19일, 11월, 12월 세 차례 더 열린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2만 원이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지난달 27일 국립광주과학관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관람객들이 천체투영관에서 정재훈 약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KT·LGU+도 해킹 의혹...과기부, 침해여부 조사 착수

인공지능(AI) 시대의 검색 서비스는 기존의 정형화된 검색 결과에서 벗어나 추천과 탐색을 기반으로 소개된 검색 결과를 내놓게 될 전망이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AI 기반 추천 검색어와 맞춤형 콘텐츠(숏컷츠 NOW)를 제공하도록 최신검색어 영역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찾아본 검색어만 화면에 게시

됐지만 개편 후에는 이용자 관심사와 검색 맥락에 어울리는 추천 검색어, 숏컷츠를 하단에 추가로 배치했다. 숏컷츠는 모바일 버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네이버는 화면 크기가 작은 모바일 기기 특성을 고려해 최근 검색어를 기본 5개까지만 표시하도록 개편했다.
검색어 아래 펼치기 버튼을 누르면 기존과 동일

하게 최대 30개까지 최근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또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추천 서비스인 ‘맞춤형 AI 블록’을 도입하기 위해 A/B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A/B 테스트는 두 가지 버전(A와 B)을 비교해 서비스 이용 형태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더라도 상황이나 취향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아우르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난 30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보자기장’ 행사 모습.

“한번 더 순환부스”로 환경지켜요

종이 쇼핑백·다회용 봉투 등
시민들 기증...재사용 순환 독려
친환경 ‘보자기장’서 첫 운영
6일 자원순환의 날 플리마켓

지난달 30일 충장로 한복판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이하 삶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장터 ‘보자기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삶디자인센터와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가 함께 마련한 보자기장은 소농과 도시농부들이 직접 기른 제철 작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장터다.
이날 장터를 찾은 시민들은 해남 무농약 홍무화과, 토종쌀, 할라피노 피클, 청양고추 장아찌, 토종생강기름 등을 구입하고 청소년들이 준비한 먹을거리를 시식했다.
여러 참여 팀 중 눈에 띄는 건 축제나 장터 등에서 다양한 재사용 순환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한번 더 순환 부스’ (이하 순환부스)였다.
순환부스는 광주일보사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문화기획사 라우, 유어스텝과 함께 진행하는 ‘쓰레기 없는 지역 행사 만들기-한 번 더’ 캠페인 중 하나로 제작했다. 유어스텝이 운영하는 ‘한걸음 가게’가 주축이 돼 활용도에 맞게 원목으로 직접 제작한 부스는 이동 가능식으로 만들어 어디서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사용을 실천하는 장터를 만들자는 취지로 만든 부스에는 시민들과 모은 쇼핑백, 재사용 포장지, 세척된 용기 등을 비치해 구매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바구니를 챙겨오지 못한 구매 고객들은 순환부스를 방문해 구비된 쇼핑백과 포장지 등을 이용했고, 자신들이 하는 행사에 순환부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 문의도 이어졌다. 한번 더 캠페인은 또 이날 장바구니나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챙겨온 시민에게는 보자기장에서 쓸 수 있는 1000원 쿠폰 증정 행사도 진행했다.
순환부스가 운영되는 장터나 이벤트 현장에서는 재사용 포장지(쇼핑백, 종이봉투, 종이완



‘쓰레기 없는 지역 행사 만들기-한 번 더’ 캠페인이 제작한 ‘한 번 더 순환부스’

충재, 신문지), 재사용 용기(투병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아이스팩, 다회용 포장컨 등을 기증할 수 있으며 한걸음 가게(광주시 동구 충장로 45-2 2층)에서도 상시 수거한다.
순환부스는 친환경적인 행사를 운영하고 싶은 기관과 단체에게 대여하며 ‘자원 되살림 부스 운영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현 한걸음 가게 대표는 “광주 곳곳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장터나 행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순환부스를 제작·운영하게 됐다”며 “쇼핑백 기증 등 시민들이 참여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순환부스는 오는 6일 전일빌딩 245 1층 북카페에서 열리는 ‘한걸음 가게와 함께하는 자원순환의 날 맞이 플리마켓’을 찾는 토요일 행사(오후 2시~5시30분)와 13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리는 지구농장터(오후 4시~7시)에서 운영된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